

이덕형 교수

성균관대출판부/B5/528면/29,000원

이덕형 교수가(40, 성균관대 노어노문학과) 최근 펴낸 《러시아 문화예술 천년의 울림》(성균관대출판부)은 결코 만만한 책이 아니다. 5백 쪽이 넘는 분량이 우선 그렇거니와 다루고 있는 시기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 점도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목 그대로 ‘천년의 울림’으로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러시아 문화 예술을 살피는 일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닐 터다. 바로 그 ‘만만치 않음’이 이 책의 미덕이다.

“소비에트 해체 이후 러시아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몰락’에 대해 말합니다. 한 예로 러시아 호텔에는 욕조의 물구멍을 막는 마개가 없는데 그게 아마도 살기가 힘들니까 호텔의 욕조 구멍 마개도 가져가기 때문일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고여 있는 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목욕을 할 때도 물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흘러놓고 하죠. 그러니 욕조에 마개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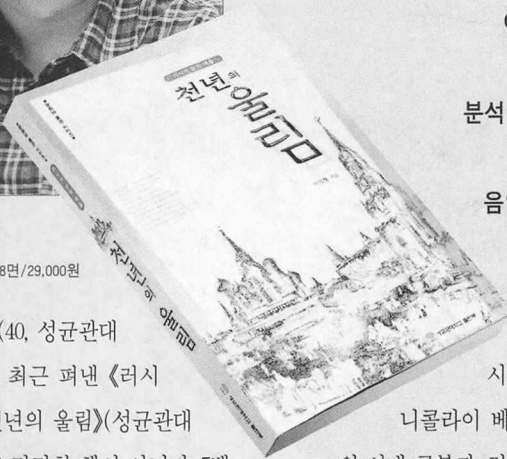
이항대립적 모델로 러시아사 접근해

이교수는 한 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바로 그 사상적인 측면을 강조해 러시아 문화 예술이라는 거대한 ‘광맥’을 총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파헤친다.

러시아 문화 예술의 ‘광맥’ 탐사

《러시아 문화 예술 천년의 울림》 펴낸 이덕형 교수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천년의 울림’으로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러시아 문화 예술을 살피고 있다. 니콜라이 베르자예프의 시대 구분과 유리 로트르만의 분석틀인 ‘이항대립적 모델’을 빌어 러시아 문화 이해의 틀거리를 짜고, 러시아의 역사와 당대의 인간 삶에 대한 서술은 물론 각종 문학작품, 건축물, 미술작품, 음악 등 그야말로 러시아 문화가 배태한 예술작품들을 총망라해 분석하고 있다.



이교수는 이를 위해 러시아 모더니즘 시기의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자예프가 설정한 러시아사의 시대 구분과, 러시아의 기호학자 유리 로트르만의 분석틀인 ‘이항대립적 모델’을 빌어 러시아 문화 이해의 틀거리를 짰다.

키에프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성’과 ‘속’이라는 대립적 모델로 파악하는 부분을 보자. 블라디미르 대공의 비잔틴 정교 수용 이후 러시아는 전통적이던 슬라브의 범신론적 자연관과 비잔틴 정교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마주치면서 이중적인 신앙체계를 형성한다. ‘성’의 문화가 주로 지배계층의 내세적 정교문화로 과거지향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면 ‘속’의 문화는 일반 민중들의 현세적 문화 양식으로 세시풍속과 민속, 속요, 의례 등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대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조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교수는 역사와 당대의 인간 삶에 대한 서술은 물론 각종 문학작품, 건축물, 미술작품, 음악 등 그야말로 러시아 문화가 배태한 예술작품들을 총망라해 분석하고 있다.

이교수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분석 덕분에 우리는 천년에 이르는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아길레프의 발레와 체홉의 연극,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푸슈킨, 파스테르나크, 마야코프스키, 고리키 등의 문학세계를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인가. 에이젠슈테인의 영화와 차이코프스키, 칸딘스키, 말레비치 등 거장들의 예술세계도 한

층 친근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책 속에 깃든 지은이의 방대한 인문학적 지식과 예술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은 읽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즐겁고 기분 좋은 ‘땀’이다.

러시아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닮은 점 많아

“문화란 일종의 유기체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한 집단의 ‘문화적 유전자’를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지니고 있죠. 문화의 시간적인 생명성은 문화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들과 상대적인 ‘관계’를 맺으며 시간의 변화 속에서 창조, 전래, 수용을 거치면서 동화와 이화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각 시대를 관통하며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러시아 문화의 유전자는 무엇일까. 이교수는 이를 ‘얼렸다 녹였다 하는 자연’이 준 러시아인의 의식구조, 기질에서 찾는다. “슬라브적인 범신론적 자연관을 지니면서도, 기독교적인 종말론의 염세주의적 성격과 스키타이와 따타르족의 광포함을 동시에 지닌 역동적이고 다변적인 성격’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민족의 사상, 기질, 심층구조와 많이 닮았다. 실제로 러시아의 신화나 민담, 신라시대 유적에 나타나는 스키타이 문화의 흔적, 정서가 비슷한 문학작품 등 러시아와 우리는 유사한 것이 많다. 그래서 “외국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부메랑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한다는 이교수는 이번 작업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읽는 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박남정(자유기고가)